

강건너 불구경

장진용

〈회사원·대구시 중리동 꽃동네아파트101-211호〉

3년전 A아파트에서 살 때 느낀 일이다. 아파트의 생활이란 비인간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맛보았던 것이다.

오랫만에 처제가 안부인사차 들러서 밤늦게 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다. 그날따라 제법 초겨울다운 날씨가 약간 으스스하여 퇴근길에 포장마차에서 술도 한잔 했던터라 피곤한 참에 잠이 곤히 들었다.

잠결에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하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형부 앞동에 불이 났어요”하는 처제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뭐 불이 났어?”

“형부 앞동을 보세요, 아파트 전체가 흰하게 불이잖아요”

건너방에 건너가 앞동을 바라보니 정말 불이 났다.

“휴 앞동이라 다행이다.”하고 한숨 돌리며 담배에 불을 당기는데,

“108동 207호 불이다”하는 주민의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07호라면 바로 우리 옆집이 아닌가. 다시 한번 건너방으로 가서 창문을 여니 열기와 함께 연기가 방안으로 스며드는 것이었다.

“여보 훈이 빨리 깨워서 밖으로 피신해! 옆집에 불났어”

그 소리를 들은 애엄마도 어쩔줄을 몰라 허둥대고 있었다.

내집에 불이 옮겨붙더라도 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장롱속에 걸어둔 윗저고리를 찾는데 왜 그렇게 힘이 들며 온몸이 떨리던지.....

6년전 우연한 기회에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수십차례나 소방서에서 방화교육

겨울바다



김정란

〈부산시 남구 광안4동 1275-1〉

겨울바다를 거닐면 당신의 모습이 떠올라요.
아무도 없는 모래밭에 뒤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내 발자욱 뿐... 또 하나의 발자욱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녕 당신은 물위를 걸어만 다니는 신기루같은 사람인가요.
차라리... 목이길어 슬픈 사슴이었다면

수정같은 눈물이 아름답게 보일것을...
차라리... 이름없는 시인이 되었더라면 당신을 내 영상에 묶어둘것을.
모래위에 동그라미를 그려봅니다.
당신은 빙그레 웃고만 있군요.
내눈은 샛별이 되어 바라봅니다.
그러나...

을 받아 누구보다도 방화활동에 자신감을 지니고 있던 나였건만.

아기는 옷을 입힐 겨를도 없어 처와 처제가 그냥 안고 피신했다. 밖에는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불이 난 옆집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아 다시 올라가 발로 문을 차며 불이 난 것을 알리니 그 소리에 문을 연 다음, 자던 아이들을 깨우고 야단이다. 그집 주인은 야간작업을 나가고 마침 없었다. 그 가족들을 아래층으로 피난 시키고 계단에 있던 포말소화기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경비원과 자치회 회장이 소화기를 가져와 함께 작업을 했다. 한편 경비원들은 사람통제를 시키고 소방서에 연락을 하는 등 바빠 움직였다. 그러는 중에 그집 안주인이 안방 장롱안에 현금과 패물이 있다면서 들어가려는 것을 막느라고 실랑이를 하는데 안방문이 열리면서 순식간에 장롱에도 불이 붙고 말았다. 불이 계속 번져서 소화기 7, 8개가 금방 바닥이 났다. 아래쪽을 내려다 보니 불구경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였다. 그곳에 대고 앞동에 가서 소화기를 가져다 달라고 고함을 쳤으나 그야말로 강건너 불구경인듯 아무도 움직여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내가 뛰어내려 갔다. 2층이라서 계단수는 27개 정도는 되었는데도 힘든 줄도 모르고 두걸음만에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왔다. 긴박할 때는 평소이상의 힘이 생기는 모양이었다.

그러는 중에 소방차가 도착하여 진화를 마쳤다. 뒤에 긴장이 풀리고 나서 살펴보니 내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다.

그 짧은 순간에 사람들의 이기심을 실제로 겪고 보니 기막힌 심정이었다.

며칠 후 임시 반사회가 개최되어 확인조사 결과가 설명되었고 주민들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도 있었다.

화재원인은 아주머니가 초저녁에 잠이들어 연탄불을 일찍 교체하지 못하고 불이 나기 30분 전쯤 연탄을 갈았는데 화덕 주변에 불이 꺼졌을 때 사용하는 번개탄에 불씨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가슴을 칠 일은 바로 윗집 아주머니의 무관심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점이다. 피해를 당한집 바로 윗집은 주인이 모호텔에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근무차 불이 나기 직전에 출타하여 그집 아주머니가 아파트 입구까지 나가서 배웅을 했다고 한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려고하자 부엌 쪽에서 탁탁하는 소리가 나며 연기가 집안에 가득 차서 이상히 여기고 살펴보니 부엌 바깥쪽에서 불길기 올라와 아래 층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자녀들을 깨워 아래층에 피난시키고 귀중품이 생각나서 다시 올라와 패물등을 갖고 내려 갔으나 그때까지도 연락을 한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 하니 얼마나 기막힐 노릇인가. 조금만 일찍 연락하였더라도 한가정의 피땀으로 모은 전재산을 한줌의 재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을.

이웃사촌들이여, 자기자신이나 내 재산만 중요한 줄 알지 말고 남의 것도 소중히 알며 오손도손 같이 웃으며 생활하도록 하자.



이내 파도가 밀려와 쓸어가 버리는군요.
떠나가세요.
내 모습 더 메말라 가루가 되어 모래처럼 반짝이는것을 보여드릴수가 없군요.
그것은 나만의 비밀.
먼 훗일.
당신이 겨울바다를 기쁜 마음으로 찾아주시면 더욱 유난히 빛날것이며 당신이 겨울바다를 슬픈

마음으로 찾아주시면 온통 물에 젖어있을거예요.
그 물빛이 마름하는 날 당신을 잊을수 있으려만...
알곳은 파도는 겨울도 없이 자꾸만 적셔 놓는군요.
봄, 여름, 가을이 가고 또 다시 겨울이 되는날 슬픈눈을 가진 수많은 모래알들이 겨울바다를 장식하겠죠.....

